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경제관계장관회의
26-19-4
(공개)

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

2026. 6. 19.

관계부처합동

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(요약)

I 추진배경

- (관광 트렌드) 최근 개방감 높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·수요 증가 등 새로운 전환기 시대
- (글로벌 시장) 글로벌 마리나시장은 전후방 산업 간 다양한 가치사슬을 형성하며 연평균 약 4.7%*로 빠르게 성장 중
* ('24) 515억달러(약 72조원) → ('33) 779억달러(약 108조원)로 성장 전망(Straits Research)
- (정책 환경) 그간 정부 주도의 인프라 위주 정책 추진, 민관 협력 강화 등 산업 활성화 및 관광·문화 확산을 통한 성장 모멘텀 모색 필요

II 국내외 현황

- (세계시장 동향) 전세계 마리나는 약 25만개 이상으로 해양관광 거점화 되고 있으며, 마리나선박은 3,400만척으로 선박 시장도 지속 성장 중
- (국내 현황) 우리나라 마리나는 총 72개(4,341선석)로 파악되며 대부분 소규모*로 조성, 마리나 선박 등록(약 4만척) 대비 11.6% 선석 확보
* 조성 규모 : (50척 이하) 74%, (51~100척) 8%, (101~200척) 10%, (201척 이상) 8%

III 추진 전략

비 전

-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산업·관광 활성화

목 표

- 마리나 이용객 : ('25) 160만명 → ('30) 210만명
- 마리나 선박·장비 수출 : ('25) 1,600만달러 → ('30) 3,200만달러

추진 전략

1. 마리나 관리체계 확립
2.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여건 개선
3.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
4. 마리나 친화적 문화 조성 및 확산

IV 세부 추진 과제

전략1. 마리나시설 및 선박 등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.

□ 마리나시설 통합 관리 및 마리나선박 범위 정비

- (통합 관리) 법적근거·운영주체 상이한 요·보트 계류시설을 대상으로 시스템 등록 및 안전관리 등 통합 관리
- (선박 범위) 현행법상 불명확한 마리나선박의 정의를 보트, 요트 등으로 한정, 정책 대상과 육성 대상 산업을 명확화

□ 마리나선박 이력관리제 도입 및 정책 지원체계 강화

- (이력 관리) 마리나선박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소유주 변경, 정비·사고 등 이력 관리, 무단 방치·폐선 방지 및 중개시장 활성화 도모
* (단계적 추진) 관리시스템 개발 → 시범운영 → 의무화 → 중개시장 활성화
- (지원 체계)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마리나 정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프라 외 산업·관광 측면 포함한 폭넓은 정책 개발 추진

전략2. 마리나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.

□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

- (거점 마리나항만) 현재 추진 중인 6개소*를 조속히 조성(총 약 1,800 선석)하고 추진 상황 및 수요 증가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조성 검토
* (동해) 경북 울진(완료, '22), 부산 해운대(사업계획 수립 중), (남해) 경남 창원('27년 완공), 전남 여수(착공 준비), (서해) 경기 안산(실시계획 수립 중), 1개소 공모 필요
- (마리나 비즈센터) 계류·수리·판매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비즈센터를 2개소(통영, 부산) 조성·운영('26하)하고, 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검토

□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

- (개발 가능 지역 확대) 현행법상 지정된 예정구역에서만 개발 가능한 마리나항만을 민간 투자의 경우 구역제한을 해제하고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
* 예정구역은 기본계획(10년), 수정계획(5년)에서 설정. 절차적으로 최소 5년 이상 소요

- (공유수면 점·사용료)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있는 민간 마리나에 대해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검토*
* (직접 점·사용 요율) 인접 토지가격의 3%, (간접 점·사용 요율) 인접 토지가격의 0.5%

전략3. 국내 마리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□ 마리나산업 수출·국제교류 지원

- (해외 판로 개척)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 개관 및 국내 업체 참가를 확대하고, 미국·유럽권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 추진
- (국제협력 강화) 국내 보트쇼*를 국제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해양산업 협회(ICOMIA)** 정회원 가입(한국마리나협회) 추진 등 국제 협력 강화
* 경기(매년 3월), 부산(매년 4월) ** 기술표준 제정 등을 수행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

□ 레저산업 기술 고도화 및 교육 체계 정립

- (기술 개발) 친환경·AI 마리나선박 등 마리나 관련 신기술 R&D 추진(~27), 민간기업 기술이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
- (교육 체계) 마리나 정비업에만 시행 중인 교육을 대여, 보관·계류업으로 체계화하고, 정기 보수교육 도입 추진

전략4. 마리나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해 마리나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
□ 마리나 연계 관광상품 활성화

- (관광상품 다양화) 마리나 관광상품 중 대부분은 단순 요·보트 유람 형태, 호핑투어·둘레길 등 체류형·체험형 상품으로 다양화 추진
- (지역 연계) 우수해양관광상품 선정 시 '마리나 분야'를 신설하여 어촌·지역의 고유 문화·축제 등과 연계된 상품 개발 권역별 브랜딩 지원

□ 마리나 문화 확산 및 홍보

- (마리나 홍보) '(가칭)가고싶은 마리나' 선정, 소셜미디어(SNS) 홍보 강화하고, 해양스포츠 제전(8월) 등 행사 개최를 통해 마리나 문화 확산
- (선진 문화 조성)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마리나 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자·이용자 대상 캠페인 시행, 마리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현황 및 개선 방향	2
1. 세계시장 동향	2
2. 국내 마리나 현황	3
III. 추진 전략	4
IV. 세부 추진 과제	5
1. 마리나 관리체계 확립	5
2.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여건 개선	7
3.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	10
4. 마리나 친화적 문화 조성 및 확산	12
V. 추진 일정	14

I. 추진 배경

※ 마리나(Marina) 란?

- 마리나선박을 계류·보관하는 시설,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을 겸비한 복합적 해양레저공간

□ 국내·외 관광 트렌드 변화

- 최근 관광트렌드는 개방감 높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·수요 증가 등 새로운 전환기* 시대

* (목적) 유명랜드마크 방문 → 개인적 취향, 체험 및 휴식, (기술) 단순 정보검색 → 탐색+문제해결(숙박교통 등), (규모) 대규모·단체·패키지·실내 → 소규모·개별·자유·야외

- 아울러, AI 및 디지털 전환 등과 연계된 이용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등의 변화가 마리나 관광분야에도 확대되는 추세

□ 글로벌 마리나 시장의 역동적인 성장 추세

- 글로벌 마리나시장은 전후방 산업 간 다양한 가치사슬을 형성* 하며 연평균 약 4.7%**로 빠르게 성장 중

* 마리나 인프라 + 운영 및 서비스 + 선박 제조 + 해양 레저관광 융복합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

** ('24) 515억달러(약 72조원) → ('33) 779억달러(약 108조원)로 성장 전망(Straits Research)

- 세계적인 성장 추세를 반영, 국내 마리나 연관산업(인프라·서비스 등) 간 생태계 구축을 통해 마리나 기반의 해양레저관광 확대 필요

□ 마리나항만 정책 환경 변화 수용

-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마리나항만법) 제정('09.6) 이후 그간 정부 주도의 거점 항만 인프라 조성에 초점

*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계획('13), 마리나산업 육성대책('14, '15)

- 공공 중심의 마리나 개발 및 산업 육성에서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산업 활성화, 관광·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모색 필요

규제 개선, 투자 다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·관광 육성

Ⅱ. 현황 및 개선 방향

1 세계시장 동향

- **(시설·운영)** 전세계 마리나는 약 2.5만개 이상으로 파악되며 호주, 스페인, 미국 등의 주요 마리나들은 해양관광 거점화

【 세계 주요 마리나 】



- 지속가능한 마리나를 위한 **이용자친화적 시스템*** 개발, 정박공간 정비, **환경관리**** 등을 강화하는 추세

* SaMMY : EU지역 중심, 모바일 기반의 마리나 플랫폼(선석 예약, 환경정보 제공 등)

** 골드 앵커(Gold Anchors), 블루 스타(Blue Stars) 등 비영리기관 주관 환경인증 획득 등

- **(산업·문화)** 마리나선박은 전 세계에 3,400만척*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, 관련된 기술과 문화가 상호 시너지 속에 성장 중

* 미국 1,576만, 캐나다 860만, 핀란드 116만, 호주 97만, 노르웨이 80만, 스웨덴 75만, 뉴질랜드 73만, 이탈리아 58만, 영국 55만, 기타 410만 척(세계해양산업협회, '23)

- 세계 주요국은 선박 제조·정비 등 **연관 산업**이 상호 시너지 속에 성장하고 있으며, **신기술(전기, 자율 등) 선박** 개발에도 관심 증가*

* (출처) Leisure Boat Market Size, Share & Trends Analysis Report('25) 등

- **보트 공유 및 임대시장 활성화, 국제대회 및 보트쇼*** 개최 등 친마리나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

* 아메리카스컵(1851년~), 마이애미 국제 보트쇼(1941년~), 모나코 요트쇼(1991년~) 등

2

국내 마리나 현황

- **(마리나 시설)**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은 총 72개소 (4,341선석)가 있으며, 마리나 등록 선박 대비 11.6%*의 계류선석 확보
 - * 마리나선박 39,994척 / 계류선석 4,341선석 (25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기준)
 - 이 중 「마리나항만법」상 마리나항만은 8개소이고 나머지는 타법상 시설*이며, 전체의 약 74%가 50선석 이하의 소규모*** 계류시설
 - * 마리나 8개소(왕산·아라·제부·목포·충무·중문·후포·창원) 외는 어촌어항법, 항만법, 공유수면법, 기타 등 13개 이상 법률을 근거로 조성
 - ** 조성 규모 : (50척 이하) 74%, (51~100척) 8%, (101~200척) 10%, (201척 이상) 8%
- **(마리나 운영)** 대부분 지방 정부, 어촌계 등에 의해 단순 계류기능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,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및 수익모델은 미흡한 상황
 - * (운영 주체) 지자체 20개소, 민간 20개소, 지역 요트협회 및 요트학교 5개소, 공기업 7개소, 대학 2개소, 어촌계 9개소, 기타 9개소(마리나실태조사, '24년)
 - 또한, 민간업체, 어촌계 등 운영 주체에 따라 계류시설의 명칭이나 서비스 기능 등이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
 - * 마리나 계류시설 현황 등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을 통해 파악(5년 주기)
- **(마리나 산업)** 국내 제조 업체는 약 350여개가 있으며,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2배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
 - * '25년 요·보트 등 수출입액 비교(관세청) : 수입액(2,815만달러) > 수출액(1,584만달러)
 - 국내 마리나선박·장비 제조 산업은 산업생명주기((Industry Life Cycle)*상 진입 초기 단계이나 성장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
 - * 5단계 주기(태동기-성장기-조정기-성숙기-쇠퇴기) 중, 태동기와 성장기 사이(한국해양대, '23)
- **(마리나 문화)** 인구 대비 마리나 선박 수는 약 1,300명당 1척으로, 선진국(미국 20명당 1척, 그리스 58명당 1척 등)에 비해 대중화 미흡
 - * 마리나선박 등록 : ('22) 35,794척 → ('23) 37,471 → ('24) 38,943 → ('25) 39,994
 - 부유층만의 취미라는 인식 및 성수기가 명확한 계절적 요인(성수기 6~9월) 등이 대중화 제약 요인으로 작용

Ⅲ. 추진 전략

비 전

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산업 · 관광 활성화

목 표

- 마리나 이용객 : ('25) 160만명 → ('30) 210만명
- 마리나 선박·장비 수출 : ('25) 1,600만달러 → ('30) 3,200만달러

추진 전략	세부 추진과제
1. 마리나 관리 체계 확립	① 마리나시설 통합 관리 및 마리나선박 범위 정비 ② 마리나선박 이력관리제 도입 ③ 통합적 마리나 정책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
2.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여건 개선	①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②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③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
3. 마리나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	① 마리나산업 수출·국제교류 지원 ② 레저산업 기술 고도화 및 교육 체계 정립
4. 마리나 친화적 문화 조성 및 확산	① 마리나 연계 관광상품 활성화 ② 마리나 문화 확산 및 홍보

IV. 세부 추진 과제

1 마리나 관리체계 확립

□ 마리나시설 통합 관리 및 마리나선박 범위 정비

○ **(통합 관리)** 현재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재

- 특히 타법*을 근거로 조성된 항만·어항에 계류·보관기능이 부가적으로 추가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

* 어촌어항법(28), 공유수면법(13), 항만법(5), 기타(18) 등

- 이에,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현황정보 파악 곤란*, 타법을 근거로 조성된 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기준 등 적용 근거 혼선 우려

* 현재는 5년 단위 기본수정계획 수립 시 별도 용역을 통해서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

⇒ 일정 기준 충족* 시 정기적으로 마리나항만 운영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시설 및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화

* 마리나항만법상의 적용 대상 선박 계류시설(부잔교, 폰툰 등)

○ **(선박 범위)** 현행법령상 마리나선박은 '유람,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선박'으로 정의되어 다양한 선박이 포함(법 제2조제3호)



- 사용 목적으로 용어정의를 함에 따라 대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관련 산업* 육성 등 정책 수립에 한계

* 마리나업(계류업, 정비업, 대여업)은 요트·보트 계류시설 및 선박 중심 체계

⇒ 마리나선박을 보트, 요트 등으로 한정, 정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종과의 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육성 추진

□ 마리아선박 이력관리제 도입

- 해외 주요 국가*와 달리 국내 마리아선박(약 4만척, '25년)은 건조, 정비·검사, 사고 등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부재

* (미국, 유럽 등) 24m 이하 또는 20톤 미만의 선박 등에 대해 고유식별번호 발급 의무화

- 선박 이력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로 중고거래시장* 형성 미흡

* 미국 중고 레저보트 거래시장은 약 103억달러(약 85만척)이며 전체 레저보트 거래의 약 78%를 차지(美국가해양산업협회, '25)

-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무단 방치·폐선으로 인한 환경·안전 문제 발생

⇒ 마리아선박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, 소유주 변경, 정비·사고 등 선박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이력 관리 추진

* (단계적 추진) 관리시스템 개발 → 시범운영 → 의무화 → 중개시장 활성화

※ 국내 마리아선박 중개시장 제도 기반 마련 추진

- 기존 마리아업에 마리아선박 중개업을 추가*하고 중개업 정의, 자격기준,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·공정한 중개시장 형성 유도

* (기존 마리아업) 선박대여업·보관계류업·정비업 → (추가) 마리아선박 중개업

□ 통합적 마리아 정책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

- 현재 기본계획 심의 등 주요 마리아정책에 대해 「항만법」 상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*에서 심의·의결

* 당연직(6개 중앙부처, 12개 시도 공무원) 및 전문가(항만개발·운영, 도시계획 등) 등 32명

- 위원회 특성상, 마리아시설 조성 외에 관광 행태·수요 변화, 산업 발전, 서비스 개선 등 마리아 관련 다양한 정책의 전문적 논의 한계

⇒ 각 분야 전문가* 등이 참여하는 '(가칭)마리아 정책 전문가 협의체'를 구성·운영 함으로써 통합적인 마리아 정책 심화·발전 추진

* 인프라 조성·운영, 마리아업 서비스, 지역관광 콘텐츠, 마케팅 등

2

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여건 개선

□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

○ 부족한* 마리나 계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 추진 중(개소당 300억원 지원, '15~)

* ('23년 말 기준) 72개소, 4,341선석으로 마리나등록선박 대비 11.6% 불과

- 해양관광 트렌드 변화로 마리나선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*됨에 따라 계류시설 부족현상 심화 예상

* ('23) 37,471척 → ('24) 38,943척 → ('25) 39,994척 → ('30) 45,000척(예상)
(출처: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)

⇒ 현재 추진 중인 6개소*를 조속히 조성(약 1,800선석)하고, 추진 상황 및 여건(수요 등)에 따라 향후 추가조성 검토

* (동해) 경북 울진(완료, '22), 부산 해운대(사업계획 수립 중), (남해) 경남 창원('27년 완공), 전남 여수(착공 준비), (서해) 경기 안산(실시계획 수립 중), 1개소 공모 필요



< 울진 후포마리나 >



< 창원 명동마리나 >



< 여수 응천마리나 >



< 안산 방아머리마리나 >

□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

- 마리나선박 건조·수리, 설비·제작, 판매, 연관산업 등 마리나산업 전주기 업체 입주·집적시킬 수 있는 비즈센터 구축·운영* 추진 중

* (통영) '25년 말 준공 이후 위수탁 사업자 선정 중, (부산) '26년 하반기 준공 예정

클러스터 기능	입주지원	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 등 입주 기업 부담 완화
	창업지원	창업 컨설팅, 사업화 자금, 시제품 제작, 판로개척 등 지원
	인력양성	전문인력 양성기관 마련을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

- 마리나 계류시설과 정비·판매 업체를 집적시켜 원스톱 서비스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편의성 강화
- 현재 2개소(통영, 부산) 조성을 추진 중이나 지역 편중 해소 및 산업 발전 속도 가속화 등을 위해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

⇒ 기 조성 중인 2개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*를 도모하고, 이후 타광역권 추가 설치 검토(지특 자율 계정)

* 마리나 관련 산업이 집적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, 수출 지원,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기대

시행자	① 경남 통영시	② 부산광역시
총사업비	190억(국비95, 지방비95)	444억(국비219, 지방비225)
사업기간	'19~'25	'19~'26
추진현황	'20.12. 착공, '25.12. 준공	'24.1. 착공, '26.8. 준공예정
위치	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일원	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부두 일원
사업내용	계류시설(해상37척), 마리나지원시설 등	계류시설(해상10척), R&D센터, 마켓플레이스, 지원동 등

<전경 및 조감도>



< 마리나비즈센터(통영) >



< 마리나비즈센터(부산) >

□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

○ **(개발 가능 지역 확대)** 현행 제도상*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서 정한 **예정구역(40개소)****에서만 가능

* 마리나항만법 제8조(사업계획의 수립) 마리나항만개발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

**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기본계획에 포함 고시

- 예정구역 외의 지역에 민간개발 요구 시 기본계획 반영 등 **절차이행**에 따른 **기간 소요*** 등으로 적기 투자가 어려워 개발 저해 요인

* 마리나항만기본계획(10년) 또는 수정계획(5년) 반영 기간 소요

⇒ 민간 개발사업의 경우 **예정구역 외에서도** 가능하도록 **제도개선** 및 **민간투자 가이드라인*** 마련을 통해 적기 투자 지원

* 사업추진 절차, 과도한 부동산 개발사업 지양, 직접 목적사업 투자 비율 등

○ **(공유수면 점·사용료)** 마리나 계류시설 중 **민간 운영 시설(20개소)**에 공유수면 점용·사용료 부과 시 모든 수역에 대해 **직접사용료 요율 적용 중**

※ 공유수면 점·사용료 산정기준

▶ **(직접 점용·사용면적)** 해당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으로 인접 토지가격의 **3% 요율**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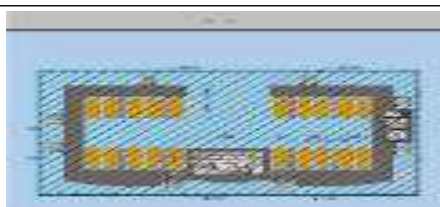
▶ **(간접 점용·사용면적)** 직접 점용·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 또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는 범위로 인접 토지가격의 **0.5% 요율** 부과

- 부잔교 등 다른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 점용면적에만 직접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외 수역은 간접 사용료 부과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제기

⇒ 민간 마리나에 대해 직·간접 면적 적용을 위한 **관계기관(지자체 등) 의견수렴·협의 후, 공유수면 점·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검토*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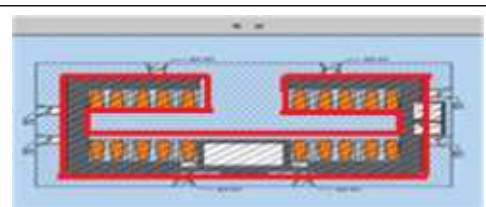
* 지자체 및 관련 업·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성 분석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 도출

- 개정 시 약 **45% 수준의 사용료 절감** 예상, **영세업체 경영 부담 완화**



(현행) 전체(빗금)가 직접 면적

→



(개선) 시설물(적색테두리)만 직접 면적

□ 마리나산업 수출·국제교류 지원

- **(해외 판로 개척)** 국내업체의 취약한 해외 마케팅 역량 감안,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*에 한국관 및 국내 업체 개관을 확대, 마케팅 효과 제고
 - * 네덜란드 보트부품산업전(METS), 미국 국제보트장비전(IBEX), 중국 상해국제보트쇼 등
 - 기존에는 부품·기자재(엔진, 프로펠러 등) 업체 위주로 참가했으나, 완성 선박 및 AI 등 첨단·스마트 기술 업체 등으로 참가 지원 확대
 - 아시아권 중심('26년 중국 상해 한국관 개설) 마케팅에서 미국·유럽권 행사에 한국관 개설 및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* 수출국 다변화 추진
 - * 유럽적합성(CE, 유럽 수출 시 필요한 규격인증) 취득 지원 등
- **(비즈니스 플랫폼 강화)** 국내 보트쇼를 국제 규모로 확대하여 국내 업체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, 산업 발전 계기로 활용
 - 대표적인 국내 보트쇼(경기, 부산)에 해외 바이어 초청 확대 등을 통해 국내업체의 수출상담 실적 증가를 비롯한 비즈니스 기능 강화

【참고】 국내 주요 보트쇼 개최현황

구 분	경기 국제보트쇼	부산 국제보트쇼
개최시기	매년 3월	매년 4월
규 모	228개 업체/1,313개 부스('26년)	146개 업체 / 1,000개 부스('26년)
주요성과	관람객 62,188명, 상담액 1,141억원	관람객 12,506명, 상담액 640억원
사 진		

* 국제 행사인 상해국제보트쇼의 경우 800여개 업체, 관계자 5만여명 참여(단순 관람 제외)

- **(국제 협력 강화)** 마리나산업 기술표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세계해양산업협회(ICOMIA)* 정회원 가입(한국마리나협회) 추진 등 국제 위상 강화

< 세계해양산업협회(ICOMIA) 개요 >

- (명칭) ICOMIA (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)
- * 각 국의 해양레저 협회·단체로 구성된 국제 비영리 단체
- (설립/소재지/회원국 수) 1966년 / 영국 / 44개국
- (주요 기능) △ 요·보트, 레저 장비 ISO 기준 마련, △ 국제 기술 지침 제공, △ 해양 레저산업 홍보·통계조사, △ IMO(국제해사기구), EU 등 대상 규제 개선 활동

□ 레저산업 기술 고도화 및 교육 체계 정립

- **(기술 개발)** 국내 마리나선박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,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R&D 등 기술 개발 및 민간 확산 지원
 - 마리나선박 신기술 시장 선도, 사고 감소를 위한 '친환경·AI 마리나선박, 수중드론(~'27)' R&D과제 추진, 민간 기술이전 등 확산
 -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마리나(모바일기반 선석배정, 해상여건 등 실시간 정보제공 등) 시스템 구축 등 추진

< 해양레저장비산업 R&D과제 예시 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개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I 기반 첨단해양레저장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스마트 마리나</p>

- **(교육 확대)** 마리나업(선박대여, 정비, 보관·계류) 중 정비업에만 시행 중인 교육을 선박대여, 보관·계류업까지 확대하고 보수교육 도입 검토
 - * (현행) 정비업만 최초교육 → (확대) 정비업, 대여업, 보관계류업에 최초·보수 교육 시행
 - ※ (국내외사례) 뉴시어선업 매년 정기 안전교육, 유도선업 매년 안전교육(8시간) 이수 의무 / 호주·미국·영국 등은 마리나항만 관리 교육과정 운영 중
 - 마리나업 교육수요* 증가(현재 연 230명 수료) 등 필요 시 경기도 김포에만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권역화** 검토
 - * 교육 대상 업종 확대 / 마리나업 등록 사업자 증가('22년 273개 → '25년 396개)
 - ** (현행) 수도권 1개소 지정 → (확대) 접근성, 교육수요 등 고려 지역거점 운영



마리나선박 정비사 교육

4

마리나 친화적 문화조성 및 확산

□ 마리나 연계 관광상품 활성화

- **(다양화)** 대부분의 마리나 대여업자(286개소)는 단순 요·보트 유람 형태의 마리나 관광상품을 운영 중으로 체류형·체험형 상품 다양화 필요
 - 지방 정부 대상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상품 개발*(‘26. 하), 지방 정부와 업체 간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
- * (예시) 섬과 섬, 섬과 어촌 등을 경유·체류하며 마리나업과 지역 문화, 해양레저를 즐기는 **호핑투어*** 상품 및 **마리나 둘레길(U자형 항해 코스)** 발굴



<마리나 호핑투어 상품 -뉴질랜드 >



<마리나 둘레길 구축 예시>

- **(지역 연계)** 어촌·지역의 고유 문화·축제 등과 연계된 마리나 상품 개발
 -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*에 ‘마리나 분야’를 신설하고 지역 축제 및 문화 상품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
- * 우수해양관광상품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및 홍보 지원
- 권역별 브랜딩* 지원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로 육성
- *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관광공사 등 협업(업계 간담회, 워크숍 등)



K-pop, K-음식 활용 요트체험



지역축제, 관광명소 연계



어촌 체험, 해수욕장 등 연계

□ **마리나 문화 확산 및 홍보**

- **(마리나 홍보)** '특정 계층의 고급·소유 중심 레저'라는 인식에서 '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해양관광'으로 인식 전환, 대중화 기반 마련
 - '(가칭)가고싶은 마리나'를 계절별로 선정하고 주변관광지, 지역 문화 체험, 먹거리 등을 결합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(26. 하)
 - 영상 콘텐츠 공모전, 인플루언서 활용, 국민 소셜미디어(SNS) 체험단 운영 등 마리나 홍보 수단 다각화
- **(스포츠 대회 개최)** 해양스포츠 제전*, 해양레저위크** 및 국제 요트 대회 등 스포츠 행사를 통해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·참여 유도
 - * 요트, 수중·핀수영, 철인 3종 등 스포츠대회 개최(8월말)
 - ** 해양레저 체험·문화 공연, 해양레저대회, 국제 컨퍼런스(7~8월)
 - 요트 및 서핑 등 이용 수요가 높은 해양레저 활동에 대해 지방정부 및 업단체의 대회·행사 개최 등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 도모



- **(선진 문화 조성)**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마리나 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자·이용자 대상 캠페인 시행, 마리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
 - 기능·유지관리·수질 기준 정립, 국내 마리나의 국제 친환경 마리나 인증(골드 앵커, 블루 스타 등)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지원

< 마리나 안전·친환경 관리분야(예시) >

기능분야	유지관리분야	수질분야
선석, 주차, 급수, 급전, 급유, 상하가 시설, 수리, 숙박, CIQ 등	쓰레기 관리, 레저보트 청소, 수리, 정화물 시설 관리 등	해수수질, 해수순환, 퇴적물(준설필요성) 등

V. 추진 일정

구 분	세부 추진과제	일 정	주관 부처
1. 마리나 관리체계 확립	마리나시설 통합 관리 및 마리나선박 범위 정비	'26~'27	해수부
	마리나선박 이력관리제 도입	'26~'27	해수부
	통합적 마리나 정책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	'26~'27	해수부
2.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	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	'26~'30	해수부 지방정부
	마리나 비즈센터 조성	'26~'30	해수부· 지방정부
	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	'26~'28	해수부· 지방정부
3.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	마리나산업 수출·국제교류 지원	'26~'30	해수부
	레저산업 기술 고도화 및 교육 체계 정립	'26~'30	해수부
4. 마리나 친화적 문화 조성 및 확산	마리나 연계 관광상품 활성화	'26~'30	해수부· 문체부 지방정부
	마리나 문화 확산 및 홍보	'26~'30	해수부· 지방정부